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한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위치는 마닐라 공항에서 차타고 1시간정도 떨어진 곳이고 택시타고 나가면 주위에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정전이 됐어요. 하지만 5분 안에 해결되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크게 불편한건 없었습니다. 학교주위에는 시장,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편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1대1 수업 3시간, 소그룹(6~7명) 수업 2시간, 대그룹(10~12명)수업 3시간 총 8시간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수업은 처음에 학교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분반하고 책도 수준별로 줍니다. 수업은 8시부터 시작하여 6시 25분에 끝나는 시간표이고 중간에 no class가 2시간 있어요. no class는 쉬는 시간이고 언제 no class가 될지는 랜덤입니다. 1대1수업은 writing, speaking, voca, pronunciation으로 되어있고 소그룹 시간에는 speaking, listening, 대그룹 시간에는 TOEIC speaking, speaking, media class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열정이 넘치셔서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에세이를 써야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voca 테스트가 있고 매주 월요일에는 writing 테스트, 매주에 한번씩 수업별로 테스트가 있어요.</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학교에서 진행한 액티비티는 딱 한번 민도로섬 투어만 참여하였습니다.</p>

	<p>순천향대에서 투어비용은 지원해주고 민도로섬에 가서 드는 추가비용은 개인이 지불했습니다. 마닐라 도로교통상황이 항상 거의 좋지 않은 편이고 교통체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민도로섬에 가는데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가던 날에 파도가 많이 쳐서 원래 타려던 작은 배를 타지 못하고 큰 배를 타고 숙소의 반대편 선착장에 도착하여 숙소에 도착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타고 4시간, 배타고 2시간, 지프니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렸고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서 민도로섬 숙소에 가는데 만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올때도 마찬가지로요. 올때는 배시간이 맞지 않아 선착장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멀미를 심하게 하는 편인데 민도로섬이 터널이 없고 산을 계속 타야하는 구불구불한 코스를 지프니 타고 2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게 되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멀미를 하시는 분은 꼭 멀미약을 지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길이 막히고 오래 기다려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시 참여하라고 한다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민도로 섬 숙소는 방이 매우 작아요. 제가 썼던 방에는 바퀴벌레도 나왔습니다. 에어컨만 잘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민도로 섬 내에서 하는 액티비티는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플라잉피시 등을 참여하였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파견됐던 시기가 필리핀의 우기여서 비가 많이 와서 첫 주에 하루 휴교되었었습니다. 그뒤로는 비가 많이 안와서 휴교되는 일이 없었어요. 우기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장마철만큼 비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새벽에 주로 비가 오고 낮이나 저녁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활동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비가 올지는 몰라 우산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햇볕이 매우 따가우므로 선크림은 필수고 저는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한국보다는 확실히 치안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항상 소지품관리에 신경 썼고 민도로 섬투어를 갔을땐 총에 맞아 죽어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만큼 위험한곳이고 총기소지가 합법이어서 어느곳에 가든지 항상 조심했습니다. 큰 쇼핑물들은 다른곳보다는 덜 위험하고 입구에 가드들이 소지품검사를 항상 합니다. 대부분 조금 큰 식당이나 쇼핑물들은 가드들이 많이 배치되어있어요. 되도록이면 현지인들과 부딪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의 방이 정말 크고 천장도 엄청 높아요. 방에서 운동하고 줄넘기까지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숙소는 일주일에 3번씩 방역을 하지만 주변에 하도 바퀴벌레들이 많아서 방에 바퀴벌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제가 지냈던 방에는 바퀴벌레가 나온적이 없지만 옆방은 3마리나 나왔어요. 숙소는 에어컨이 잘되서 항상 시원하지만 창문을 못열기 때문에 창문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환기가 정말 하나도 안됩니다. 숙소 복도에도 창문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성비염이 있었는데 가서 정말 심해졌어요. 인터넷은 정말 느려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못합니다. 건물밖에서는 인터넷이 잘 되는곳이 많지만 건물안에서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썼던방은 아예 통화권 이탈이어서 카톡만 간간히 할수 있는정도였어요.</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기타(<input type="radio"/>)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식당에는 식단표가 있고 한식을 줍니다. 한국이랑 맛이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저녁때는 외출을 자주해서 밖에서 많이 사먹었습니다. 필리핀이 길거리음식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사먹지 않았고, 깨끗한 레스토랑같은 곳에서만 주로 사먹었어요. 밖에서 사먹을 때는 잘못먹으면 배탈이 나니 조심해야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호텔에서 걸어서 1~2분거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수업가는것은 정말 편했습니다. 마닐라는 항상 거리가 번잡하고 교통질서라고는 찾아볼수 없어요. 저녁시간에는 항상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저녁시간이 아니더라도 한국처럼 뽕뽕 달리는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통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우버나 그랩택시를 이용하고 1시간이 걸리는 거리여도 4명이서 타면 1인당 2000~2500원정도 밖에 안나와요.</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교통비, 민도로섬 액티비티, 쇼핑, 식사, 개인활동 비용.	464,730 (2017.08.22 환율기준)	302달러 한국에서 환전 7000페소 ATM 카드출금
합계	1,153,44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설사약, 감기약 등 개인상비약은 필수로 가져가셔야합니다. 특히 필리핀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식먹고 배탈이 심하게 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개인상비약은 넉넉하게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도 한국에서 미리 가져가시는게 좋아요. 저도 가기전에 후기를 보고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을 2개정도 챙겨갔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8시간을 수업하는데 모두 선생님이 다르시고 다들 좋으셔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가져온것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5~6개는 챙겨가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무엇이든지 한국과 비교하면 나올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구요 특히 공항에서 입국심사하는데 저는 1시간 반 줄서서 기다렸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다들 느긋하고 손이 굉장히 느려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가기전에는 이것저것 걱정도 많이했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달간 같이지낸다는 것에 부담도 많이느꼈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참여한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한것도 정말 많았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서 힘들었습니다. 민도로섬투어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음식과 물때문에 배탈이나서 고생도하고 원래 있었던 비염이 정말 심해져서 힘들었어요. 한 번정도는 경험해볼만 하지만 또 가라고 하면 가지 않을것같네요. 영어실력은 아주 조금 늘었구요. 기대한것만큼 많은 실력향상은 없었어요. 만약에 진짜 단지 토익, 토익스피킹 등을 원하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학원다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동안 필리핀 문화체험 겸 영어공부라고 생각하시면되고, 한달이라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보다는 놀러다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마음잡고 공부하기에는 힘듭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것이 좋을것같아요.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얻을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여 영어실력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ASALLIAN LANGUAGE CENTER			
Korean Name:	한지혜		
English Name:	Shirly		
University:	SoonChunHyang University		
Time	Teacher	Subject	Room
08:00 - 08:50	T. Anne	Writing 1	C32
09:00 - 09:50	T. Arman	TOEFL	C20
09:55 - 10:45	NO CLASS		
10:55 - 11:45	NO CLASS		
11:50 - 12:40	T. JR	TOEFL Writing	C22
12:50 - 01:40	LUNCH		
01:45 - 02:35	T. Mary Ann	Speaking 1	Y3
02:45 - 03:35	T. Jhaz	Speaking 2	Y21
03:40 - 04:30	T. Glai	TOEFL	H35
04:40 - 05:30	T. Marga	TOEFL	RM417
05:35 - 06:25	T. Roel	TOEFL Multimedia Practice	RM4108

시간표



민도로투어



민도로투어



몰오브아시아



순천향대 학생들



한국도착